스포츠동아
2015년 5월 21일 목요일 sportsdonga.com 33판



강정호 시즌 3번째 3안타
주전 유격수 굳히기 돌입
2면

프로야구 경기 결과 20일

삼성	25	잠실	6	두산
LG	4	목동	9	넥센
한화	6	문학	7	SK
KIA	9	사직	5	롯데
kt	2	마산	4	NC

넥센, LG전 5전승…유한준 4할 진입

NC 박민우 결승타…나성범 쐐기 솔로
나바로 16호 홈런 선두…삼성 24안타
이재원 끝내기·SK 36일만에 1위 복귀



유한준

2015 TIRE BANK KBO LEAGUE

사자군단의 방망이가 선발타자 전원 안타·전원득점으로 대폭발했다.

삼성은 20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2015 타이어뱅크 KBO리그' 두산과의 원정경기에서 홈런 4방을 포함한 장단 24안타로 25-6 대승을 거뒀다. 25점은 올 시즌 한 팀 최다득점이자, 1997년 5월 4일 삼성이 LG를 상대로 올린 역대 최다득점(27)에 2점 모자란 점수다.

삼성 나바로는 시즌 15·16호 아치(6회 2점·7회 2점)를 연타석으로 그리며 홈런 단독 선두로 나섰다. 6타수 5안타 7타점. 최형우도 7회 시즌 15호 2점홈런을 날렸다. 삼성 선발 피가로는 6이닝 4실점으로 시즌 6승(2패)을 수확해 이날 목동 LG전에서 8이닝 4실점으로 승리한 넥센 밴 헤켄과 다승 공동선두를 이뤘다.

문학에선 SK가 9회말 1사 1·2루서 터진 이재원의 끝내기안타로 한화를 7-6으로 꺾고 36일 만에 1위로 복귀했다. 넥센은 목동에서 LG를 9-4로 누르고 올 시즌 LG전 5전승을 달렸다. 넥센 유한준은 5회 결승 솔로포(시즌 12호)를 비롯해 3타수 2안타로 마침내 4할대 타율(0.404)로 올라섰다.

NC는 마산에서 kt에 4-2 역전승을 거뒀다. 2-2 동점인 7회말 박민우의 적시타로 3-2로 달아난 뒤 8회말 나성범의 우월 솔로홈런(시즌 5호)으로 승기를 잡았다. NC 3번째 투수 임정호는 0.2이닝 무실점으로 2013년 프로 데뷔 후 첫 승을 신고했다. 사직에선 KIA가 롯데를 9-5로 물리치고 전날 패배를 설욕하며 5할 승률을 회복했다.

잠실 | 배영은 기자 yeb@donga.com

김두현 추가시간 PK골…성남, 광저우 잡았다

원정 2차전 비기기만해도 8강
서울, 감바 오사카에 1-3 완패



시민구단 성남FC가 기적을 연출했다. 20일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15 AFC 챔피언스리그 16강 홈 1차전에서 아시아클럽무대의 '극강' 광저우 에버그란데(중국)를 2-1로 누르고 8강 진출 전망을 한층 밝혔다. 성남 박태민(오른쪽)이 상대와 공중볼을 다투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AFC CHAMPIONS LEAGUE

성남FC가 중국슈퍼리그의 최강 광저우 에버그란데를 2-1로 꺾는 파란을 일으켰다.

성남은 20일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15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홈경기에서 1-1로 동점을 이룬 후반 인저리타임 김두현의 페널티킥 결승골에 힘입어 광저우에 2-1로 이겼다.

당초 성남-광저우전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불렸다. 막대한 자금력을 자랑하는 광저우에 비해 시민구단 성남은 너무도 작아보였다. 그러나 이는 성남 선수들의 투지를 일깨우는 원동력이 됐다. 경기 초반부터 거센 공격을 퍼부은 성남은 전반 22분 조르징요의 선제골로 분위기를 살렸다. 그러나 성남의 리드는 오래가지 못했다. 광저우가 전반 41분 황보원의 중거리 슛으로 동점을 만들었다.

승부는 후반 종료 직전 갈렸다. 성남은 김두현이 상대 파울로 얻은 페널티킥을 깔끔하게 성공시키면서 극적으로 승리했다. 열세라는 예상을 깨고 홈에서 승리를 챙긴 성남은 8강 진출의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양 팀의 2차전은 27일 광저우 톈허스타디움에서 펼쳐진다.

한편 감바 오사카(일본)를 홈으로 불러들인 FC서울은 1-3으로 완패했다. 서울은 후반에만 내리 3골을 허용했다. 인저리타임에 윤주태가 1골을 만회했지만, 16강 진출 가능성은 현저히 멀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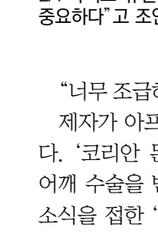
상암 |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편집 | 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

다저스, 오늘 류현진 어깨수술 여부 공식발표

"현진아, 조급해 하지마"

스승 김인식, 애제자를 위한 조언



김인식 전 한화감독

어디가 얼마나 안좋은건지
어깨는 팔꿈치와는 다른데…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시는 아프지 않아야 한다는 것
수술해야 한다면 시간이 걸려도
완전히 낫고 오는게 낫다



LA 다저스 류현진이 결국 어깨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그가 영원한 스승으로 존경하고 있는 김인식 전 한화 감독은 "조급해하지 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전히 낫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스포츠동아DB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제자가 아프다니 스승의 마음도 아픈 모양이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28·LA 다저스)이 어깨 수술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이 소식을 접한 '국민감독' 김인식(68) 전 한화 감독(현 KBO 규칙위원장 겸 기술위원장)은 한숨부터 내쉬었다.

그동안 현지 유력 언론과 칼럼니스트들은 류현진의 어깨 부상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점을 거론해왔고, 20일(한국시간)에는 류현진이 왼쪽 어깨 수술을 받게 됐다는 확정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다저스 앤드루 프리드먼 사장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류현진의 어깨 수술을 고려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다저스는 21일 이와 관련해 공식발표를 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한화 시절 류현진이 프로에 데뷔해 한국 최고 투수로 성장하는 과정을 쭉 지켜봤다. 2009년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도 태극마크를 달고 희로애락을 함께 했다. 그래서인지 류현진은 메이저리그 진출 이후로도 종종 김 위원장에게 안부전화를 하고, 귀국 후에는 같이 CF를 찍고 식사도 함께 하며 조언을 듣기도 했다. 그러나 어깨 통증과 관련해선 그동안 언론에 함구해온 것처럼 스승에게도 전혀 이야기하지 않은 모양이다.

김 위원장은 20일 "아직 (류)현진이한테 전화나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답답한 마음을 드러낸 뒤 "어디가 얼마나 안 좋은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도 조심스럽지만, 어깨라면 팔꿈치가 아픈 것하고는 또 다르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어깨 부상은 처음 당한 것이라 며칠 쉬면 괜찮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안 아프니까 다시 던지고, 쉬다 던지기를 반복하니 더 나빠졌을 수 있다"고 걱정했다.

류현진은 지난해 어깨에 염증이 생겨 부상자명단에 오른 경험이 있다. 그리고 올해 스프링캠프에서 어깨 통증이 발생해 치료와 훈련을 병행해왔다. 현대 의학과 재활 기술의 발달로 팔꿈치는 인대접합수술이라도 1년~1년 6개월 정도 지나면 회복이 되지만, 어깨는 부위와 증상에 따라 다르기는 해도 회복 속도가 팔꿈치에 비해 더디다. 더군다나 어깨 수술을 받은 선수 중 과거 구위를 영영 회복하지 못하고 은퇴한 선수도 부지기수다. 그래서 대부분의 투수들은 어깨 부상 시 웬만하면 수술 대신 재활을 선택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다시는 아프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재활을 해서 나을 수만 있다면 재활을 해야겠지만, 수술을 해야 한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전히 낫고 오는 게 낫다. 조급하게 생각한다고 해결될 건 없다. 이럴 때일수록 조급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미국 가기 이틀 전에 현진이하고 식사를 했는데, '부상을 당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롱런한다'고 말했었다. 그때만 해도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겠나"라며 다시 한숨을 내쉬었다.

▶수술 극복한 염종석·이대진 코치의 시선 2면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5-00660호(2015.3.26) [21789]

2형(유병자형)가입 시
병이 있어도
약을 먹어도
수술 했어도
가입 OK되는 국내 최초의 암보험

Cigna. 라이나생명

라이나 무배당 OK암보험(갱신형)
무늬만 암보험은 가라~
이제 가입 문턱을 낮춘 암보험 탄생!

40세 남자 월 27,300원
가입금액 1,000만원, 2형(유병자형) 최초계약 기준

병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국내 최초 유병자 전용 암보험
*2형(유병자형)가입시, AIDS(에이즈), 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진단자 또는 유병자 제외

1형(표준체형) 15세~60세, 2형(유병자형) 30세~60세까지 가입 가능하고, 갱신을 통해 100세까지 보장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시 피보험자의 나이 및 보험료율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위암·폐암·대장암 같은 각종 일반암은 물론, 백혈병·뇌암·골수암도 빠짐없이 보장
요즘 빈발하는 전립선암·갑상선암·유방암·기타 피부암도 보장
*일반암 2,000만원, 유방암·전립선암 각 400만원, 갑상선암·기타피부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 각 200만원 (주계약 가입금액 1,000만원기준, 보장 개시일 이후 2년이내 지급사유 발생시 50%보장)
*보장개시일은 1형(표준체형)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이며, 2형(유병자형)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임.
*만기지급금 50만원(주계약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만기 생존시)

구분	1형(표준체형)		2형(유병자형)	
	남자	여자	남자	여자
30세	9,400원	11,000원	18,600원	14,500원
40세	13,900원	15,700원	27,300원	24,100원
50세	26,300원	20,900원	39,300원	38,900원

*기준 : 가입금액 주계약 1,000만원, 전기간월납, 10년만기, 갱신형

구분	여자(40세 기준)		
경과기간	이미 납입한 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289,200원	13,600원	4.7%
2년	578,400원	167,000원	28.9%
3년	867,600원	262,400원	30.2%
5년	1,446,000원	419,200원	29.0%
10년	2,892,000원	500,000원	17.3%

*기준 : 가입금액 주계약 1,000만원, 전기간월납, 10년만기, 유병자형, 갱신형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지금 전화하세요!"
24시간 무료상담문의 080-015-9900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전기간 월납, 만기지급형이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갱신시 최대 100세까지 보장) *AIDS(에이즈), 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진단자 또는 유병자는 2형(유병자형) 가입 제외. 가입 2년 이내 지급사유 발생시 50%를 지급함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림.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불이행, 청약서에 자필 서명 또는 전자 서명을 아니한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 가능 *현재 및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계약 해지 후 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 거절 또는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람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음.